

최지호 EKKI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패션과 예술을 풀어낸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준에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시선으로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며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작업은 자연에서 얻은 형태와 색, 그리고 불완전함에서 시작된다. 자연이 가진 아름다움은 완벽함보다 결핍과 흔적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믿는다. 부족한 상태의 아름다움과 완벽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을 디자인에 담아낸다. 남겨진 여백과 미완성의 흔적은 보는 이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으며 비로소 완성된다.

개인의 서사와 결핍을 옷으로 표현한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도 장난기를 담아,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숙하고 키치한 내면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연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생명과 모순,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자유를 나만의 이야기로 풀어내며, 옷을 통해 각자의 개성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고자 한다.



완벽하게 정리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 손으로 작업하며 생기는 흔적과 우연을 그대로 남기는 것을 좋아한다. 에어브러시의 번짐, 패브릭 조각, 서로 다른 질감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이며 새로운 장면을 만든다. 정답을 보여주는 작업이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이 되었으면 한다.